

아이러니와 아이러니 서사의 읽기 문제

문영진^{*}

〈차 례〉

- I. 서론
- II. 아이러니의 특성과 아이러니 읽기
- III. 아이러니 서사의 읽기
 - 1. 짧은 서사물과 상황적 아이러니: 긴장과 기대의 역전
 - 2. 영화 서사와 비언어적 돌출 표지들
- IV. 아이러니 (서사)와 교수·학습 활동 구상
- V. 마무리

I. 서론

흔히 반어(反語)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아이러니는 전통적으로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상반되는 수사의 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러한 수사 양식은 오래 전부터 문학 작품이나 연설 등 다양한 소통체에서 위력을 발휘해 왔으므로 이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서양 고대의 수사학은 많은 이론적 노력들을 경주한 바 있다. 그 후¹⁾ 아이러니의 의미는 의미의 확장과 변모를 이루었고 특히 낭만주의 이후로 아이러니는 미학상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용어가 되었다.²⁾ 아이러니한 내용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iammyz@kice.re.kr

1) 피크, D. C.(1980), 문상득 역, 『아이러니』, 서울대: 27 이하.

2) 특히 다음을 참조함. 벨러, E.(2005), 이강훈·신주철 역, 『아이러니와 모더니티』 담

텍스트 생산이 많아진 관계로 아이러니적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국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현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 현상에 대한 문학 교육적 접근은 영성하기 짝이 없다. 김성진은 『삼대』와 『태평천하』의 아이러니를 인식론적인 시각에서 다룬 바 있고, 임경순이 채만식의 풍자를 다룬 자리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다.³⁾ 김성진은 『삼대』의 중도적 아이러니와 『태평천하』의 극적 아이러니를 소설의 내적 형식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현실 인식 방법으로서의 소설의 특성을 다룬 바 있다. 김성진의 연구는 소설 교육 초창기의 모색을 보여 주는 연구로 '수사학의 아이러니가 발전하여 소설의 정신적 멘탈리티 차원으로 발전한 것이 소설의 아이러니'라고 하여 수사학적 시각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이 글의 접근 방향에 시사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러니 서사에 대한 교육이 국어 교육적 관점이나 문학 교육의 관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이러니 탐색의 국어 교육적 의의가 적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탐색의 의의로 다음 네 가지로 들고 싶다. 첫째, 아이러니는 담화의 복잡한 운용 양상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언어 활동 자체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아이러니 서사의 학습을 통하여 한국 소설사가 생산해 낸 풍부한 서사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읽기 능력 습득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일찍이 1980년대까지 한국근대 소설사의 주류는 리얼리즘적 서사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이러니적 서사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 아이러니적 발화나 아이러니적 서사가 주체의 이중성을 어느 정도 전제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주체의 분열은 근대성의 특정한 성격에서 말미암은 바 크다. 일찍이 낭만주의 시대 이후 근대성이 발전하면서 사회적 근대성과 미적 근대성의

론』, 동문선: Wellek, R. (1965), *A History of Modern Criticism*, vol.2, Yale Univ. Press.

3) 김성진(1994), 「아이러니를 통한 소설의 현실 인식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임경순 (1995), 「인물 형상화 양상을 통한 소설교육 연구 채만식 풍자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충돌⁴⁾에서 전자가 후자를 압도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자아의 표현 방식의 하나가 아이러니로 현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근대소설사의 경우 아이러니의 흐름은 근대 이전의 연암 소설로부터 시작하여 1900년대의 이인직⁵⁾과 1910년대의 양전식, 1920년대의 염상섭, 현진건, 1930년대의 이상과 김유정의 구인회, 최명익, 유헌림의 『단층』파를 거쳐 1950년대 손창섭⁶⁾ 등에 이르기까지 면면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한국근대소설사가 '사회적 근대성' 자체에 대한 대안적 비판을 염두에 두면서 리얼리즘 서사를 자신의 주류로 삼았을 때, 이러한 소설사의 주류적 시각에서 볼 때 아이러니는 리얼리즘 미학보다 그 의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쉴레겔에서 줄거에 이르는 아이러니 미학은 거의 타기해야 할 대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루카치의 중후기 미학과 그에 이어지는 헤겔의 미학은 아이러니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아이러니가, '참된 진지함을 너무 자주 상실한 데가 주로 열악한 주체에서만 기쁨을 느낀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아이러니 속에는 마음이 실제로 행동하고 존재하는 대신 단순한 동경으로 그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⁷⁾라거나, '향수 또는 동경과 같이 모든 방면에서 파괴시키는 예술이어서 이는 참된 예술과는 반대로 내적이며 비예술적인 무절제함을 지니고 있다.'⁸⁾라고 규정하는 태도에서 단적인 표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와 그에 이어지는 모더니즘에 대한 복권과 더불어 과거의 소설 서사에 대한 시각도 변화한 것이 사실이며, 헤겔이 위에서 규정한 아이러니의 방법이나 루카치가 1950년대에

4) 칼리네스쿠, M.(1993), 이영옥·백한울·오무석·백지숙 역,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시각과언어.

5) 문영진(2002), 「근대 초기 소설의 근대성 - 이인직의 신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어어문학』 48 참조.

6) 한 연구자는 1950년대 아이러니와 관련하여 손창섭, 장용학, 김성환을 다루고 있다. 박유희(2003), 『1950년대 소설과 반어의 수사학』, 월인 참조.

7) 헤겔, G. F. W.(1996), 두행숙 역, 『헤겔 미학』 제1권, 나남: 227.

8) 같은 책, 229면. 헤겔의 우주적 아이러니에 대한 시각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벨러, E., 앞의 책 참조.

규정한 모더니즘 서사는 단적으로 배제해 버리기에는 풍부한 예술적 내용을 갖고 있음이 사실이다. 셋째, 아이러니 서사는 텍스트 자체와 현실에 대한 발견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 예컨대 미국의 중등학교 서사 교실에서 그렇듯이 오 헨리의 「마기의 선물」이나 모파쌍의 「목걸이」와 같은 작품을 통하여 삶의 역설적인 의미에 대한 진전된 사색을 자극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진지한 아이러니 서사는 통념의 외피에 쌓인 현실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어 삶의 표피를 넘어서진 진실에 도달하는 도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른바 아이러니의 발견적 효과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러니의 읽기는 읽기 능력의 개체 발전사에서 고도로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⁹⁾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어 교육의 목표를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라고 일단 범박하게 정의했을 때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의사소통 능력의 충위가 무엇이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국어 교육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사고할 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판단되나, 생각처럼 명료하게 해결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다루려는 문제인 아이러니나 아이러니 서사의 읽기 문제에서도 여전히 문젯거리이다. 국어 교육의 통일성 문제를 운위하는 것은 아이러니나 아이러니 서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방법론만을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서양 고대에는 수사학이나 시학의 문제의 도움을 받았던 듯하지만, 오늘날 여러 학문 분야의 세분화와 접근 방법의 발달로 그리고 무엇보다 좁은 의미의 언어활동을 위시한 텍스트 발현 양상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한 가지 방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듯이 보인다. 그리하여 오늘날 국어 교육에서 제출되는 문제들은 일

9) 한 문학사전은 다음의 말로 아이러니 읽기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내 아이러니가들의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아이러니의 재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독서 숙련도의 최종적 시험이다.”(에이브러햄스, M. H.(1991), 최상규 역, 『문학용어사전』, 보성출판사: 142.).

단 세분화된 방법론들 통합해서 해결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아이러니는 우선적으로는 일상적인 담화(discourse)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서사물(narrative)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전자가 수사학의 대상이라면 후자는 시학의 대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양자를 동일 평면 위에 놓고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담화에서의 아이러니와 서사에서의 아이러니는 담화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어 교육의 평면에서 이 문제는 통일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방법론의 통합의 어느 정도 요청된다. 일상적인 담화나 서사물 모두 하나의 텍스트 구조물임이 사실이기도 하고, 서사가 담화 자체와 만리장성을 쌓게 되면 아이러니 현상에 대한 기술이 불가능한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아이러니 서사의 읽기나 그 교육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화용론, 텍스트언어학, 수사학 그리고 서사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난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문제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아이러니 현상을 다룰 때 서사론이 작품 전체를 기본적으로 전제한다는 것에 반해, 화용론은 아이러니를 우선적으로 발화의 한 현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동일한 대상을 다루면서도 서사론과 화용론은 접근의 초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아이러니를 발화의 한 양상으로 볼 때 주로 다루어지는 아이러니는 언어적 아이러니이다. 이 경우 언어의 현상과 본질의 불일치, 의미와 실재의 불일치¹⁰⁾ 등과 같은 다른 현상(충위)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둘째, 화용론이 서사를 다룰 경우 서사의 텍스트 전체적 차원이거나 의미의 전체적 국면보다는 언어의 양태나 의미의 특수한 양상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텍스트 전체의 주제나 소통 의도 등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서는 텍스트의 의미 관련성이 드러나기 힘들다는 것

10) 많은 문헌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피크, D. C.(1980), 문상득 역, 『아이러니』, 서울대; 김성진, 앞의 논문; 박현호(1997), 「이대준 문학의 소설사적 위상」, 성균관대 박사논문.

이다.

그것에 대한 접근 방법론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언어적이라거나 상황적이라거나 하는 아이러니 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는 언어적 구조물이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나름의 언어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화와 같은 일상적인 담화 활동은 단순히 특정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그러한 상황은 어느 정도 완결한 의미 전달 단위인 텍스트를 이루고 있으므로 어떤 상위 구조가 요청된다. 이 글이 아이러니 서사 읽기와 읽기 관련 활동들을 서사교육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여기에 약간의 수사학적 범주들과 텍스트언어학적인 범주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 다룰 텍스트는 일상 담화나 만화 등 짧은 서사물과 영화 등 비교적 긴 서사물이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러니를 다루고 있으나 특히 상황적 아이러니가 논의의 중심에 있다.

여기서 아이러니와 아이러니 서사와 관련하여 약간의 언급이 필요하다. 아이러니 서사는 일단 범박하게 보아 아이러니 현상을 포함하는 서사를 지칭한다. 아이러니 서사라 할 때는 두 경우, 곧 아이러니가 포함된 서사(narrative of irony)와 서사의 성격 자체가 아이러니한 경우(ironic narrative)를 아울러 지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두 범주는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데 양자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다시 아이러니의 비중에 따라 다음 셋으로 하위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최소한의 상황만을 보여 주는 담화 형태의 아이러니나 서사 텍스트에서 아이러니가 부분적인 경우로만 존재하는 경우이다.(3장 1절) 두 번째는 텍스트에서 아이러니가 주요 구성 단위이거나 중핵적 구성 단위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전체가 아이러니의 다양성과 복잡함을 보여 주는 경우로 흔히 작품 전체가 아이러니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3장 2절). 그리고 아이러니와 아이러니 서사의 경우도 후자가 전자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그다지 명확하거나 엄밀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아이러니가 발화나 상황 혹은 프레임을 관찰의 상위 한계로 가지고 있다고 보고 아이러니 서사는

서사 텍스트라는 상위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구분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물론 양자는 많은 지점에서 서로 만난다.

이 글은 서사와 담화를 완전히 통일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고¹¹⁾, 대상 작품의 수준이 제한되어 있으며, 분석 대상 작품이 고교에서 활용되기에 제한적인 작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II. 아이러니의 특성과 아이러니 읽기

아이러니는 의미론적 전도를 중심으로 한 언어적 아이러니와 텍스트의 문맥과 관련된 세심한 독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조적 아이러니 두 개로 나뉘고 안정성 여부로 안정적 아이러니와 불안정한 아이러니로 나뉘 수 있다.¹²⁾ 이러한 아이러니의 분류는 세부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이러니 개념의 복잡함을 슈람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이러니의 현상형식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구어적·수사법적 아이러니, 낭만적 아이러니, 에로스적 아이러니, 서사적 아이러니, 구성적 아이

11) 이 글에서는 예컨대 움베르토 에코처럼 아이러니나 아이러니 서사를 충분히 화용론적으로 다루는 시도에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12) 에이브러햄스, 앞의 책 참조. 아이러니의 개념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김윤식 편(1976), 『문학비평용어사전』, 일지사; 에이브러햄스, M. H.(1991), 최상규 역, 『문학용어사전』, 보성출판사; 칠더스, J.·헨치, G.(1999), 황종연 역, 『현대 문학·문화 비평 용어 사전』, 문학동네; 小川和夫·橋口禾念,(1961), 『ニュークリティシズム辞典』, 研究社; Wales, K.(1989), A Dictionary of Stylistics, Longman; Shipley, J., (ed.) Dictionary of World Literature, Latterfield, Adams & Co., 1968.

“Irony”, Michael Kelly (ed.)(1998), *Encyclopedia of Aesthetics*, Oxford University Press, vol.2;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Fourth Edition.(2000)(웹사이트 참조).

러니(미학적 구성 요소로서의 아이러니), 초월적 아이러니, 비극적 아이러니(초기 만이나 카프카 소설처럼 비극적 세관이 투영되어 있는 아이러니)와 같은 개념이 그것으로, 여기에는 아무튼 유희적 농담이나 반어적 웃음, 자기초월이라는 의미가 들어간다. 토마스 만에 의하면 아이러니는 모순과 긴장에 대한 통찰이자 양면성의 시각이고, 일방적 가치를 부정하는 회의적·지성적 태도이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는 끊임없이 양자의 모순을 뛰어넘으려는 초월적 자세(마성적 아이러니 내지 초월적 아이러니)를 견지한다. 아이러니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심장의 웃음(유머)과는 형제적이면서도, 그와는 달리 거리를 지키고 고수하는 냉정한 웃음, 이지적 웃음이다. 루카치는 아이러니를 변증법적 의미에서 '마지막 한계에 도달한 주관성의 자기지양으로서 신이 없는 시대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유'라고 규정한다."¹³⁾

아이러니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소설사의 풍부한 결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세분화된 개념들은 아이러니가 복잡하게 발달한 독일 문학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변잡한 감이 있다.¹⁴⁾ 한국 소설사의 맥락과 견주어 보면 이러한 아이러니의 분류는 조금은 단순화되어도 좋을 것이며 국어 교육의 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국어 교육의 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이러니의 개념은 언어적 아이러니와 상황적 아이러니, 극적 아이러니(비극적 아이러니, 희극적 아이러니) 정도이다. 이러한 아이러니의 3분법적 개념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감이 있으나 주요한 아이러니의 개념을 보여 주는 데 그다지 큰 무리는 없다. 예컨대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초중등 학교 영어 교사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노스 캐롤라이나를 배우자'(Learn NC)라는 사이트에서도 아이러니는 3개로 단순화되어 있고 그 개념도 한국에서 통념적으로 사용되는 개념과 많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될 때 낭만적 아이러니나 우주적 아이러

13) 슈랍케, J.(1995), 원당희 외 역, 『현대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95~296. 밑줄은 인용자.

14) 상황적 아이러니에 대한 상세한 하위 분류에 대해서는 Shelley, C.(2001), "The bicoherence theory of situational irony", *Cognitive Science* 25를 참조할 것. 물론 근대 소설 양식의 주요한 특성을 아이러니로 보는 태도는 이러한 분류는 더욱 확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니가 생략되어 버리는 단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소설의 경우 이상이나 손창섭 등 일부 소설을 제외하면 복잡한 아이러니가 흔하지는 않으므로 복잡한 학술 담론의 차원이 아니라면 교실에서의 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일단 이 정도로 일단 제한해서 다루어도 무방할 듯하다. 교실 현장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아이러니에 대한 ‘표준적’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언어적 아이러니: “발화된 말만 지시한다. 언어적 아이러니는 등장인물이 한 가지를 말하면서 반대의 것을 암시하거나 의도할 때 발생한다. 이 때 대조는 화자가 말하는 것과 그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 사이에 존재한다. 전형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이저』에서 안토니우스의 ‘그리고 브루투스는 정직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들고 있다. 그리고 다음에 안토니우스의 말에 의해서 브루투스의 실제적 모습을 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극적 아이러니: “발화된 말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극적 아이러니는 한 등장인물에 의해서 의도된 의미나 행동이 실제 상황과 반대될 때 발생한다. 대조는 등장인물이 말하고, 생각하거나 행동한 것과 실제 상황 간에 존재한다. 나아가 등장인물은 그 대조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관객이나 독자는 그 대조를 알 수 있다.” 한국 문학사에서는 「봉산 탈출」에서 양반들을 놀리는 장면이 이의 전형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상황적 아이러니: “논리적 인과관계나 정당화될 수 있는 기대에 도전한다. 예를 들면, 인색한 백만장자가 복권을 사서 또 다시 수백만 달러를 탄다면, 이러한 상황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러니는 상황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환경)은 불공평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불공평하거나 불행하다고 하는 이러한 감정은 상황적 아이러니의 징표(특징)가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공평함을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가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사실상 ‘부조리한’ 아이러니와 상황적 아이러니를 등치시키고 있다.”

우주적 아이러니: “어떤 아이러니는 불공평함을 넘어서서 도덕적으로 비극적이 된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종종 너무 엄격하여 사람들에게 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야기할 것이고 우리가 적대적임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를 테면, 어떤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관대한 인간이 복권을 사고 수백만 달러를 타고 나서 이틀 후에 자동차 사고로 죽는다면, 아이러니는 비극적인 위치(proportions)에 도달할 것이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악의적인 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상정하게 될 것이다.”¹⁵⁾

이러한 아이러니에 대한 정의는 그야말로 표준적인 정의로서 논자마다 세부적인 강조점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큰 틀에서는 수용 가능하다고 봐도 될 것이다. 예컨대 극적 아이러니를 상황적 아이러니의 일부로 보는가 아니면 그것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극적 아이러니를 제외한 상황적 아이러니는 미학적 범주 이전에 심리적 범주이면서 존재적 범주이다. 그러므로 상황적 아이러니는 굳이 서사 형식이나 텍스트 형식을 취하지 않고 담화 상황의 제시만으로도 말하는 이의 의도를 실현시킬 수 있다. 상황적 아이러니는 흔히 다음 세 가지 경우를 지칭한다. 첫째, 위의 표준적 정의가 지적하는 대로 상황적 아이러니는 ‘독자가 기대했던 것이나 적합하다고 가정했던 것과 실제로 발생한 일 사이에 부조화(모순)를 보여 주는 하나의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발생한 것이 기대하거나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것과 반대의 것이 발생할 때 발생한다. 이 예기 혹은 기대와 낙차간의 긴장이 배반감이나 놀라움을 불러일으킨다. 이 충격은 대체로 웃음을 유발시킬 것이다.(희극적 아이러니, 비극적 아이러니) 둘째, 인간 존재가 이해와 통제를 넘어선 힘 때문에 곤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아이러니의 한 유형을 의미한다. 셋째, 우주적 아이러니의 다른 용어로 쓰이는 경우로 둘째와 같은 경우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이러니에서 그 담화의 발화자는 대체로 다음 두 가지의 기

15) 이상의 정의들은 Del Mar College에서 운영하는 ‘Stone Writing Center’에서의 정의이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delmar.edu/engl/wrtctr/handouts/irony.htm>)이다.

능, 곧 비판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를 겨냥한다고 지적된다¹⁶⁾. 전자가 논리적인 기능이라면 후자는 정서적 기능인 셈이다. 이 정서적 의미와 관련해서 르불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이러니는 말하고자 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말하는 어법인데, 이것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의미 사이의 대조를 통해서 남을 웃기기 위해서이다.”¹⁷⁾

그러나 아이러니에서의 비판적 자세는 풍자에서와는 다른데, 거기에 풍자에는 없는 모호함이나 공손함이 있다. 아이러니는 공격성이 약한 풍자인 것이다.¹⁸⁾ 바로 이러한 점으로 해서 강한 아이러니는 풍자에 접근하게 되고 대조를 개념화해 버리거나 명시해 버리면 아이러니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그 순간 아이러니는 소멸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어느 곳이나 개선되고 있지, 그리고 이 개선에 관한 연설은
 굶주린 자의 입도 채우지, 그것이 뜨거운 바위에 떨어진
 물 한 방울 대신 두 방울일지라도.
 이것이 개선이 아닌가? 개선되어진 것이 다만 착취 제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지는 못한다.”(브레히트)

이 시를 인용한 위르겐 링크에 의하면 이 구절은 아이러니가 아닌데 그것은 부정이 기저 의미화(Denotate)되어서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¹⁹⁾ 바로 이런 점으로 해서 아이러니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며, 상대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계속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는 유머보다는 강하지만 풍자보다는 약하여 양자의 중간

16) Hutcheon, L.(1994), *Irony's Edge - The theory and politics of irony*, Routledge & Kegan Paul: 37.

17) 르불, A.(1999), 박인철 역, 『수사학』, 한길사: 87.

18) 프라이, N.(1982),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282.

19) 링크, J.(1994), 고규진·김용민·이지은·전동열·한성자 역, 『기호와 문학: 문학의 기본 구조와 개념』, 민음사: 179.

쯤에 위치하게 된다. 예컨대 연암의 경우 비판의 강도와 열정의 크기에 서는 풍자적이나 외적인 글쓰기의 태도는 의식적으로 모호함을 가장했기 때문에 아이러니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²⁰⁾

한편 아이러니는 ‘의미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말하지 않은 것을 의미’²¹⁾한다. 이러한 진술은 언어적 아이러니는 물론이고 모든 아이러니에 적용되며, 패러디에도 적용되는 현상이다.

“아이러니와 패러디는 모두 독자에 의해서 해독되어야 하는 하나의 메시지 보다 많은 것을 제시함으로써 정상적인 소통을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말해질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해석으로부터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감추기 위해 메시지들의 이러한 이중화(duplication)가 사용된다.”²²⁾

이러한 아이러니의 특성은 아이러니 해석에서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첫 번째, 지나치게 약한 아이러니는 오소통(誤疏通)의 가능성에 노출된다는 것이다.²³⁾ 이러한 오소통(miscommunication)을 피해 가려면 고도의 해석적 훈련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 때문에 아이러니는 해석을 위한 때로 고통스러운 자극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표현의 영역을 훈련하기 위한 매우 재미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두 번째, 아이러니의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하여 아이러니의 궁극적인 의미 실

20) 「호곡장론」에서의 울음과 같은 정서의 강도와 「호질」에서의 비판의 강도는 등가라고 판단되며, 저자의 아이러니적인 가장(假裝)에서 흘려넘치기 때문에 심리적인 자기 증명이 계속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명호(1993),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참조). 「호질」의 작가 논쟁에 대해서는 김명호는 중국인 원작자설에 서 있으나 계속되는 「호질」에서 보인 연암의 비판 강도와 중국인과의 관련을 집요하게 강조하는 것을 보면 심리적 검열의 정도가 컸던 것으로 해석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비판의 대상에 대한 다른 관점을 세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1) Nash, W.(1989), *Rhetoric: The Wit of Persuasion*, Basil Blackwell : 118

22) Rose, M. A.(1993), *Parody: Ancient, Modern, and Post-modern*: 87.

23) 辻大介(1997), 「アイロニー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論」, 『東京大学社会情報研究所紀要』 55号: 91-127 참조.

현은 독자(독자)와의 협력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독자(청자)의 사회·문화적 지식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맥 해석적 능력, 곧 의사소통 능력이 아이러니 소통의 '성립'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다시 말해서 아이러니 해석은 독자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므로 독자 지식의 한계가 아이러니 소통의 조건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러니 소통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화용론적 계기와 관련되어 있다. 소통의 성패가 독자(청자)에게 달려 있다는 점이 그 하나이고, 독자의 해석 능력의 소통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 다른 하나이다. 이러한 아이러니 소통 특성으로 인하여 아이러니의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서는 수사학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1) ① 범스테드가 이웃 꼬마인 엘모에게 돈을 주면서 아이스크림 두 개를 사 오라고 시킨다. ② 엘모가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두 개를 산다. ③ (다음 장면에서) 엘모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들고 먹고 있을 뿐 다른 아이스크림은 없다. 범스테드가 아이스크림이 왜 하나밖에 없느냐고 묻는다. ④ 엘모의 대답. '저기 떨어진 것이 아저씨 건데요.'('블론디' [네 컷 만화])

(2) ① '주무시는 아빠를 놀라게 해 드려야지.' ② '이렇게 눈에다 빨간 셀로판 테이프를 붙여 놓으면' ③ '깨고 나서 불이 난 줄 알고 놀라실 거야.' ④ (잠에서 깨 아빠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아니, 새파랗게 어린 놈이 술을 다 마셔, 영?"(만화)

(1)이나 (2)에서 웃음이 발생하는 것은 기대의 역전 때문이다. 한 인물의 기상천외한 반응이 독자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데서 웃음이 발생하고 있다. 독자의 그 '기대'는 희생자의 기대에 동일시하여 구성된 기대이다. 독자는 다른 인물의 오해에 부화뇌동하여 희생이 된다. 곧, 희생자는 인물과 독자(관객)인 셈이다. 이 경우 공모의 선은 (작가-인물1) 대 (독자-인물2)의 선이 된다. 인물과 독자(청자)는 모두 작가가 마련한 아이러니 전략의 희생물이 된다. 그렇지만 독자는 이 희생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작가가 웃음을 그 대가로 지불했기 때문이다. (작가) 대 (독

자-인물)의 대립 방식, 다시 말해 (작가-인물)의 공모 방식은 극적 아이러니의 전형인 (작가-관객)의 공모로 (인물) 중 하나를 희생시키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

한편 아이러니는 기대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화용론적 상황(작가-독자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폐쇄성의 원리를 갖는다고 지적된다. 폐쇄성의 원리는 아이러니의 희생자가 반박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아이러니로 응수하거나 '당신의 아이러니는 적절치 않다'고 말하는 식으로 화를 내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수사적 담화의 힘이다.²⁴⁾ 말하자면 서사에서의 설득은 통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서사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소통이 정상적인 소통이 아니라 아이러니적 소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을 문맥에 맞게 추론·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러니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요소를 아이러니의 표지라 할 수 있는바, 이는 해독을 위한 열쇠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발화자 쪽에서 보면 자신의 소통체(communication)에 어떤 작용, 예컨대 낮설게 하기 작용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낮설게 만드는 장치의 존재로 인하여 발화의 표면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고 대안적인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는 불일치들을 창출해 낼 수 있다.²⁵⁾ 한 연구자는 아이러니를 '의도화된 부적절한 언어행위'로 파악한다. 이러한 '의도화된 부적절한 언어 행위'는 언어 행위의 돌출성 가설과도 사실상 통하는 바가 있다.²⁶⁾

낮설게 하기를 드러나게 하는 이러한 아이러니의 표지에는 음성적 요소, 운율적 요소, 상호텍스트성, 문학사적 관습 등의 저자와 관련 요소

24) 르블, 앞의 책, 122면.

25) 링크, J. (1994), 고규진·김용민·이지은·전동열·한성자 역, 『기호와 문학: 문학의 기본 구조와 개념』, 민음사: 197; 辻大介(1997), 『アイロニー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論』, 『東京大學社會情報研究所紀要』 55호의 6장 참조.

26) Giora, R. · Fein., O. (1999), "Irony: Context and Salience." *Metaphor and Symbol*, vol. 14-4: 241-257.

등이 있다.²⁷⁾ 예컨대 브레히트와 같은 작가가 파시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경우 그럴 리가 없을 것으로 우리는 추론하고, 그것을 부조리한 경우로 가정하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르볼이 말하는 과장되거나 차거운 어조 및 따옴표, 말줄임표 같은 문장 부호, 전언과 문맥 혹은 상황과의 관계, 그리고 희생자의 담화를 그의 어조와 상투어를 곁들여서 흉내내기, 과장된 찬사, 시기에 적절치 못한 찬사 등의 담화적 표지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이지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모순도 모두 아이러니를 나타내는 표지²⁸⁾가 될 수 있다. 이런 표지들은 모두 주어진 문맥의 흐름상 부적절하게 모순되거나 돌출되거나 문맥 자체를 낮설게 하는 요소가 된다.²⁹⁾

이러한 반어의 표지들은 소통을 위한 상호 거점이 된다. 작가의 입장에서 독자에게 소통하기 위해 설정한 의도적으로 숨겨 놓은 거명묵이고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출발 신호로 전체 담화나 서사물을 해석하기 위한 유력한 단서로 활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추론 활동은 텍스트 해석을 위한 출발점이자 기저 역할을 하는 행위가 된다. 그린은 농담이 숨겨진 전제를 폭로하는 것이 의해 실현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³⁰⁾ 이러한 농담의 특성은 아이러니에도 해당된다고 하겠는데, (3)은 아이러니의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 준다.

(3) 주말에 자가용을 몰고 고속도로를 달려 아들집에 가는 아버지에게 아들로부터 휴대 전화가 왔다. ‘아버지 지금 ○○썸 달리고 계시지요?’ ‘오냐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 조심하세요, 지금 어떤 미친 놈이 고속도로를 거꾸로 달린다고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데,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염려 말아라,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미친놈이 한 놈이 아니라 여럿이구나.’

27) 링크, J., 앞의 책, 179면 이하.

28) 르볼, A., 앞의 책: 89.

29) 예컨대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에서 변기를 뒤집어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도 아이러니의 사례로 넣어서 관찰된다. 辻大介(1997), 앞의 책 참조.

30) Green, T. F.(1979), “Learning without Metaphor”, Ortony, A., (ed.), *Metaphor and Thought* : 464.

이 이야기는 자기 폭로를 보여 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웃을 수 있으려면 순간적으로 몇 개의 추론 과정을 경과해야 한다. 먼저, ○○지점을 확인하고, 거꾸로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그 지점에 있음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이야기로부터 그 지점에 있는 사람이 다른 아닌 아버지 자신임을 이야기를 듣는 즉시 직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웃음과 추론은 사실상 본질적인 연관 관계에 놓여 있다. 웃음을 유발하는 많은 텍스트들은 텍스트의 자질로부터만 웃음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이 웃음이 텍스트의 자질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웃음의 이론을 상호주의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겠다. 독자의 도움이 있어야 웃음은 발생하는 것이다. 아니 도움이 아니라 독자에게 추론 노동을 자극하여 웃기는 텍스트를 생성해 낼 수 있는 사람만이 해석 노동을 통하여 스스로 웃음이라는 댓가를 지불받는 것이다. 말하자면 읽기를 통한 웃음은 읽기 과정에서 텍스트 생산에 성공한 경우인 것이다. 텍스트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려는 목적이 웃음 그 자체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다만 텍스트 분량이 작지 않아서 단기 기억의 긴장을 많이 요구하는 텍스트의 경우 이야기는 조금 복잡해질 것이다.

텍스트를 대하면 대조를 통하거나 해서 문맥상의 모순을 발견하고 그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소통 의도를 추론할 때 아이러니 서사 텍스트의 해석은 본 궤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문제는 어떤 요소와 그 요소들의 결합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적절한 대조와 돌출을 유발하는가이다. 먼저 대조를 통해서 의도적인 돌출 자체를 감지하는 것이 출발이 된다. 독자는 줄거리의 파악(전체 파악)과 그 과정(독서 과정)에서 대조, 위화감을 발견하고, 아이러니 여부를 발견하고 그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이 위화감을 이중정합성으로 설명하려 한 것이다. 이 발견은 인물의 비밀이나 실존적인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³¹⁾ 그리고 이것은 사회 자체의 비밀을 발견하는 일이 될

31) 존경하는 인물의 파오를 발견하고 그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성장해 가는 아이러니

수도 있다. 삶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 놓인 미세함의 기미를 알기 힘든 젊은이가 성숙한 남성의 장르인 소설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아이러니가 발견이나 특히 폭로 서사와 관련되는 사회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근대 사회의 특성과 예술 텍스트적 기록의 속성에서 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근대 사회에서의 진실의 존재 방식을 들 수 있다. 봉건 사회의 법칙들은 눈에 보이지만 근대 사회의 여러 법칙들은 가치 법칙으로 인해 감추어져 있다.³²⁾ 다른 하나는, 부분의 합리성과 전체의 불합리성을 보여 주는 경우에 부분적인 요소들간의 모순을 통해서 근대 사회의 비밀을 발견하는 경우 III장에서 다룬 「닥터 스트레인지러브」(1964)의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둘째, 소설 장르 자체의 특성을 들 수 있다. 루카치(1914)가 소설을 성숙한 남성의 장르로서 규정할 때의 포괄적인 아이러니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인쇄물에 의한 사건의 기록 자체에서 오는 것을 들 수 있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이인직의 「귀의성」, 1908)이나 보는 행위에 의한 폭로 문제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넷째, 남녀간의 성적 문제 같은 기록되기에 걸끄러운 것과 관련된 내용 등을 들 수 있다.

<아이러니 (서사) 읽기의 절차>

- ① 전체 의미의 잠정적 개괄 ⇨
- ② 담론의 불합리함이나 부적합함 발견 ⇨
- ③ 담론의 의미 판별 ⇨
- ④ 반어 여부 판별(← 반어 표지 판별) ⇨
- ⑤a 반어의 효과 감지(말화 행위적, 말화 수반적, 말화 효과적) ⇨
- ⑥a 작품의 전체 의미 해독(으로 회귀)
- ⑤b 반어의 효과 음미 ⇨
- ⑥b 작품의 전체 의미 음미

서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32) 문영진(1999), 「근대의 포획력과 그 힘에서 탈출하기」, 『민족문화사연구』 13.

단순화의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겠으나 메타적 활용의 차원과 교육장에서의 수행의 표준을 위해서 아이러니(서사) 읽기의 과정을 위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독자가 자신의 지식과 믿음을 작가가 의도하거나 구성한 세계와 조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의 추동력은 독자의 추론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상황 해석 능력과 재구성 능력 그리고 종합 능력 등이다. 먼저 ①(전체 의미의 잠정적 개괄)은 작품을 읽은 최초의 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자(청자)가 작품을 읽고서 구성해낸 최초의 계슈탈트를 의미한다.³³⁾ 이러한 최초의 ‘그릇된’ 인상이 없이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작품의 예상된 의미에 대한 모순이나 ‘돌출’을 발견하는 단계(②)가 온다. 다음은 그것의 의미를 판별해야 한다.³⁴⁾ 사실상 ②(담론의 불합리함이나 부적합함의 발견), ③(그 의미 판별), ④(반어 여부 판별)은 절차적인 과정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동시에 그리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거의 동시에 ⑤(반어의 효과 감지)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전체 의미가 해독(⑥a)되면서, 다시 원래의 반어 표지로 향하게 된다. (②, ③, ④로의 소급) 이 그림에서 ⑤와 ⑥은 반복되는 과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일종의 ‘해석학적 순환’이라 할 만하다. 이런 ‘해석학적 순환’을 나타내는 ① ~ ⑥의 전체적인 과정이나 ⑤a → ⑤b, ⑥a → ⑥b의 과정은 ‘[작품 해석의] 수용 ⇔ 거부 ⇔ 부분적 수용’³⁵⁾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단순히 의

33) 이 대목에서 유능한 독자라면 인상적인 ‘비유 도식’을 생산해 낼 것이다. 읽기에서의 구성 과정과 비유 도식 생산의 문제에 대하여 의미있는 시사를 주는 것으로는 스파이비, N.N.(2004), 신현재·박태호·이주섭·김도남·임천택 역, 『구성주의와 읽기·쓰기』, 박이정 참조.

34) 이 모순을 해명하는 것이 아이러니의 ‘재구성’에서 넘어야 할 어려운 장애 중의 하나가 된다. 셸리는 아이러니에 나타나는 이러한 장애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개의 정합성론을 주장한 바 있다. Shelley, C.(2001), “The bicoherence theory of situational irony”, *Cognitive Science* 25.

35) Booth, W.C.(1974), *A Rhetoric of Iron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09.

미 해독의 과정(발화 행위)에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 전체의 효과, 곧 발화 수반 행위나 발화 효과 행위(perlocutionary)에도 해당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웨인 부스가 아이러니 소통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공동체의 형성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 발화의 이러한 효과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3)과 같은 아이러니의 경우 즉각적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에 구별의 충동이 생겨날 수 있다. 아이러니는 희생자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희생자를 토대로 하여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사람은 웃을 수 있으며, 이 '이해하여 웃을 수 있는 사람'의 공동체 형성을 아이러니가 돕는 것이다.³⁶⁾ 이런 점에서 아이러니는 '엘리트주의적인' 특성을 매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의 도시는 관여되는 요소를 포괄하는 과정이고 실제 이 과정은 반드시 모두를 망라한다거나 순서에 입각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아울러 궁극적인 문제는 언제나 아이러니성 여부의 판정 자체가 아니라 아이러니의 방법을 통하여 나타나는 텍스트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소통의 과정, 의미의 역동적인 운동 과정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것이다.

III. 아이러니 서사의 읽기

1. 짧은 서사물과 상황적 아이러니: 긴장과 기대의 역전

이 만화의 아이러니성은 분명하여 그것의 감지가 특별히 어렵지는 않다. 특히 아이(다운이) 엄마의 의도를 자신의 의도와 동일시하는 독자의 경우 아이러니성의 판별은 별로 어렵지 않다.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예상치 않은 일격으로 좌절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만화의 지은

36) Booth, W.C.(1974), 같은 책: 28.



「세계 공용어」³⁷⁾

37) 『한겨레 신문』, 2006. 2. 28.

이가 우선적으로 비웃는 자는 바로 부모이다. 아이와 지은이가 공모하여 아이의 엄마를 희생시킨 경우가 된다. 어린이가 보여 주는 발랄함은 보는 이의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지은이가 조롱하는 것은 결국 어른들의 교활함이라고 할 수 있다. 예상치 않은 일격에 의한 어른의 패배를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아이러니의 표지에 대한 설명은 프레임과 관련된 계획(‘플랜’) 개념의 도입에 의해서 설명 가능하다.³⁸⁾ 결국 이 텍스트는 인물의 계획의 좌절로 설명할 수 있다. 이 텍스트의 관심선은 이중적이어서 두 개의 전략(계획)이 동상이몽하기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 전체는 대위법적인 구조를 가지며 주제는 아이러니 현상을 포함한 전체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야기는 딜레마를 이루고 있었던 셈이다. 일종의 딜레마적 아이러니인 셈이다. 이것이 웃음을 선사한다. 이것은 어른 의도의 좌절이기도 하지만, 아이 의도의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작가 의도의 좌절은 아니다. 아이러니의 종합적 시각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굳이 주제를 말하라면 아이 기르기의 어려움과 기쁨쯤 되겠다. 아이 기르기의 어려움이 이 만화 텍스트의 주제라면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품위를 가진 어른의 한계가 될 것이다. 다음 만화는 위의 이야기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셈이지만 아이러니성이 모호한 경우이다. 이 글에 대한 감상문들을 보면 아이러니의 발견과 아이러니가 포함된 서사의 해석(⑥a)은 전연 별개 문제임을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38) 쉥크, R. C. (2002). 신현정 역, 『역동적 기억』, 시그마프레스: 73과 이곳 저곳.



(「하예린의 산타 잔치」 1994)

이 그림에서 아이러니 표지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그림도 계획의 좌절이라는 점으로 보면 아이러니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로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아이러니의 요소가 작품 전체에 걸치는 아이러니가 아니라 국지적(local)인 아이러니로 작품의 초점에서

빛겨나 있어서 긴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 나타난 ‘불의의 일격’ 모티프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야 한다. 그러나 그 점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관심선의 정합성 파괴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산타 잔치」와 「세계 공통어」의 주제상 공통점은 둘다 아이의 발랄함이 소재가 되어 있다는 점인데, 다른 점은 주제상 전자는 놀이와 같은 순수한 기쁨과 관련된 일이 문제가 되고 있고, 후자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작품의 주제는 사뭇 다르다. 「세계 공통어」가 아이의 순진함을 보여 주면서도 성실성의 관점에서 보면 노회함을 보여서 ‘순진함’과 거리가 있는 반면, 「산타잔치」의 아이의 순진함을 보는 데서 오는 기쁨을 보여 준다. 이 텍스트 아이다움에 대한 복합적 관점이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는 텍스트이다. 이 텍스트를 비밀을 알려는 아이와 비밀을 감추려는 어른의 싸움으로 읽는다면 이 텍스트는 아이러니적 텍스트이다. 그렇다면 어른은 아이로 하여금 그 나이에 걸맞는 순진함을 지켜 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텍스트는 더 나아가서 계속 자신의 욕망으로 발전해 나간다. 역시 희미하게나마 아이의 욕망들이 발달·분화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비밀 캐기와 ‘비밀 알아서 별로 좋을 것 없음’의 긴장이 반치 주는 텍스트로 읽는 것이 텍스트의 의미론적 긴장을 높여 주는 독법으로 생각된다. 어른이 마련해 주는 배려와 안도감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를 보는 즐거움 정도를 주제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대해서 특별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감상문을 요구했을 때, 39명 중의 3명 정도가 아이러니를 느끼고 있었고³⁹⁾ 이렇게 적은 학생들도 작품의 전체적 해석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역시 문제는 아이러니의 표지 발견이나 아이러니성 여부의 판단이 아니라 기법을 넘어선 작품 자체의 해독이라는 것이고 이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⁴⁰⁾ 이 두

39) 2003학년도 서울대학교 4학년 1학기 <문학감상론> 강의의 자료임.

40) 아동의 세계를 다룬 또 다른 작품으로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가 있다. 이 작품은 내일 숙제를 해 오지 않으면 퇴학시킨다는 선생님의 협박을 사실로 믿은 아이의 ‘순진한’ 공책 돌려주기 이야기로 ‘계획’의 실패 우려를 아이 나름

만화는 ⑤a→⑥a, ⑤b→⑥b의 순환이 쉽지 않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텍스트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하나의 '논항'이라고 할 인물 자체의 매력에 매료되어 또 다른 의미 중심으로 만들어 내면서 아이러니의 초점을 흐리게 하며 아이러니 읽기를 어렵게 하는 읽기의 장애 요소가 됨을 볼 수 있다. 이 장애를 돌파하려면 독자의 '백과사전적 지식'의 증가나 독자의 '프레임' 지식의 증가가 요청되는 지점이다.⁴¹⁾

2. 영화 서사와 비언어적 돌출 표지들

스탠리 큐브릭의 「닥터 스트레인지러브」(1964)는 핵전쟁 문제를 회화적으로 다룬 영화 서사이다. 상대방에 대한 음모론적 지식에 현혹되어 자신의 죄를 정화하고 소련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핵 공격을 감행하는 데서 이야기는 시작된다.⁴²⁾ 영화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극히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차례로 제시한다. 영화는 전개부의 길이가 짧고 해결부를 잔뜩 늘어 놓은 오락 영화의 방식과는 대척적인 지점에서 진행된다. 텍스트는 핵무기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지구의 멸망과 직결되는 작품내적 상황에 맞추어서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동되는 식으로 전개된다.

으로 해결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억압적 교실과 주위 어른들의 방해 공작에 맞서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이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숙제를 대신해 준다는 발상을 보여 준다. 이 작품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아이러니성을 판별하는 데 무뎠히 어려워함을 볼 수 있다. 아동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조감하는 아이러니적 서사를 해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두 세계를 동시에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역시 ⑤a→⑥a, ⑤b→⑥b의 순환이 쉽지 않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41) 에코, U(1996)., 김운찬 역, 『소설 속의 독자』, 열린책들 등을 참조할 것.

42) 「닥터 스트레인지러브」와 관련해서는 모너코, J.(1998), 최인화 외 역,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세계영화평론 101』, 창작시대사; 에버트, R.(2002), 최보은·윤철희 역,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위대한 영화』, 을유문화사; 보이어, P.(1998), 손세호·김지혜 역,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마크 C. 칸즈 외, 『영화로 본 새로운 역사』, 소나무, 1998 등이 번역되어 참고할 수 있다.

이야기의 초두에 미치광이인 리퍼 장군으로부터 공격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 기지를 폐쇄하고 비행기와의 연락도 차단해 버린다. 원래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와의 의사소통은 세 글자로 된 접두사를 미리 입력했을 때만 소통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소련 대사와의 대화, 당서기장과의 대화 등 노력이 다각도로 시도된다. 중간에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겪기는 하지만 소통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폭격기와의 비밀 암호가 해제되고 문제가 해결되어 「아마겔돈」적인 성공을 야단법석하며 축하하려는 찰나 서기장으로부터의 전화가 온다. 일단 공격을 받으면 지구의 멸망이 프로그램화된 '최후의 심판일' 무기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행기 편대 중 마지막 한 대는 적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기체 고장이 나서 외부와의 일체의 소통이 단절되어 버린 상태이다. 마지막에 그 비행기는 원래의 목표를 변경해서 어떠한 귀환 가능성도 차단한 채 폭탄과 함께 산화해 버리고 만다. 이로써 영화 제목이 시사하는 대로 '폭탄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된다. 이리하여 지구가 핵전쟁으로 인해 종말을 맞이한다는 묵시록적인 우울한 줄거리를 완성하게 된다.

영화에서 다루는 문제는 인간적인 소통에 관한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소통, 우리 내부의 소통, 우리와 적의 소통, 인간과 기계의 소통, 군 내부의 소통 등 다양한 소통 관계가 이 텍스트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보이는 인류 멸절의 상황이라는 대단히 부조리한 상황, 그 상황으로 돌입하는 긍정적인 노력들 자체가 모두 아이러니한 시각의 조롱을 받는다. 그런데 지구의 멸망이라는 상황 자체가 거대서사적인 것이고 그것이 부조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 향한 직간접적인 사건이나 경향성은 모두 아이러니의 지표가 된다. 텍스트는 우주적인 아이러니와 자살한 아이러니들을 보여 주고 있다. 전체적인 줄거리 진행과 관련된 부조리함의 지표들이 있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 아이러니의 지표들이나 아니고 아이러니 해석의 단서가 되는 비언어적인 지표들이다. 그 비언어적 지표들은 음악, 교차 편집⁴³⁾, 카메라의 각도, 배우의 표정, 배

43) 장소의 교차 편집에 대해서는 로저 에버트, 앞의 글, 46면 참조. 이것은 이것은 비동

우의 목소리, 배우의 동작 등의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음악이 결정적인 아이러니의 표지가 된다. 핵무기를 투하하러 갈 때에 경쾌한 행진곡풍의 음악이 계속해서 연주된다. 지구의 멸망과 대비되는 경쾌한 행진곡은 작품 전체의 주조 정조가 되어서 매우 심한 부조화를 산출해 내면서 합리적인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는 일부 인물들의 행동을 가련하게 보이도록 한다.(피터 셀러스가 연기한 맨드레이크 대령과 합중국 대통령이 가장 사려깊고 합리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교차 편집의 문제는 그것이 결합적 몽타쥬이든 진행적 몽타쥬이든 부조화를 강조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불러 일으킨다. 이를 테면 위 롬(전쟁 상황실)과 터깃슨의 아지트의 이상한 대비 등이 그렇다. 그리고 전쟁 상황실과 폭격기 기내의 상황의 대비도 문제적이다. 셋째, 카메라의 촬영 각도. 광적인 인물이나 전쟁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의 경우 양각 촬영을 함으로써 그 인물을 그로테스크하게 보이게 만들고 있다. 예컨대 리퍼 장군과 터깃슨 장군이 호전적인 발언을 할 때는 대부분 양각 촬영으로 관객들에게 제시되는데 반해, 진지한 인물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고투를 할 때는 평각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할 때는 평각 촬영으로 위 롬(전쟁 상황실) 내부를 보여 주면서 '여기 있는 한 다 하는 사람들이 이 위급한 와중에 도대체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기법들은 배우의 표정과 목소리, 동작에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어 작품의 부조화를 강조하면서 분위기를 낮설게 만들면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다시 조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한다.(③, ④, ⑤a)

영화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일상적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설명의 언어를 위해서는 부득불 영화의 표현 기법에 대한 약간의 주목이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굳이 영화 기법이라기보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을

시성의 동시성 인식에 관한 인쇄 서사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Scholes, R. · Kellogg, R. (1966), *The Nature of Narrative*, Oxford University Press 참조.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므로 영화의 교육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의 숙달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자질들은 인물들의 행동이나 시스템 자체가 보여주는 부조리라는 내용적인 요소에 의해서 보완되면서 작품에 방향을 부여한다. 부조화는 조롱이라는 독자(관객)의 태도를 산출해 내는 데 기여하지만 작품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은 내용적(주제적) 요소이다. 리퍼, 터깃슨이나 소련 대사, 서기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물들이 음모적이며 비민주적인 태도와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는 이들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히에로니무스 보쉬적인 기괴극임을 보여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이러니 표지의 발견 자체만으로는 소통 자체의 목적에 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주제와 텍스트 자체의 표현 의도 이해에 도움이 될 때만 적극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러니의 돌출 표지는 우선적으로 해석 활동을 위한 단서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단서 설정의 타당성 등이 전제가 되어야 아이러니의 진정한 효과를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반어적 단서들(③, ④, ⑤)의 확인에 이어서 전체를 음미하는 단계에서 작품이 지니는 의미의 확장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세계에 편만한 부당함'이라는 주제층이 여기에서 나타나며(⑥a와 ⑥b), 이 지점에서 반어의 표지들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서 의미의 층은 당연한 것처럼 자기 전개하기 시작한다. 발견과 독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점이다. 이는 아이러니의 발견과 아이러니 효과의 발견이 세계의 발견을 결과하는 경우이다. 이를 상세한 해명을 위해서는 별개의 자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지만, 서너 가지 풍부한 의미층을 마련할 수 있다. 인간적인 소통과 관련한 복잡한 아이러니,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하여 기획된 기계 장치의 아이러니, 인간을 위해 마련된 도구(무기)의 아이러니, 인간의 자기 결정의 아이러니 등 복잡한 아이러니와의 만남이 그것이다.

IV. 아이러니 (서사)와 교수·학습 활동 구상

개체적 활동에 해당하는 아이러니 읽기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계통발생적인 절차인 학생들의 공동 활동으로서 아이러니에 대하여 접근하는 절차와 동일시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특히 교수·학습 활동은 이러한 계통 발생적인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장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읽기의 경험이 그대로 옮겨지는 과정과 약간 다른 점을 포함함은 물론이다.

아이러니 (서사)에 대한 교수·학습 활동을 구안하기에 앞서 아이러니를 문학의 속성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노스 캐롤라이나를 배우자’(Learn NC)⁴⁴⁾라는 사이트의 교육 내용을 잠시 언급하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이 사이트의 특성은 우선, 아이러니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수·학습적으로 접근한 드문 사이트로 주로 상황적 아이러니에 초점을 맞추어 아이러니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전형적인 미국식 교육의 장점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교사를 위한 상세한 안내와 학생이 수업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유용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웹 사이트의 장점과 한계들은 어느 정도 신비평의 장점과 한계와 흡사한 점이

44) 이 사이트의 아이러니의 주소는(<http://www.learnnc.org/lessons/anngerber> 95 200481)이다. 이 사이트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전체 115 개 학교와 연계를 가진 사이트 체계의 일부로 미국을 넘어서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사이트는 몇 가지 장점을 갖는다. 첫째, 학생의 친근한 예 중심으로 되어 있어 학생의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 생활 중심적인 친근한 소재에서 접근의 단서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점. 둘째, 아이러니의 정의, 예시 작품, 활동 내용 안내, 성취 기준과 평가 방법까지를 망라하는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는 점. 셋째, 교사의 비전문성을 대학의 지원을 받는 현장의 전문가가 전문적 지식에 의해서 보완해 줌으로써 교육에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러나 몇 가지 한계도 있는데, 반복 연습(드릴)에 가까운, 문제 풀이 중심의 프로그램이라는 것, 주체적인 느낌, 표현 의도, 사회·문화적 문해력 증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비판적 문해력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텍스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말하기나 글쓰기’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있다.

이러한 웹 기반 교육의 내용과 앞 장에서 언급한 절차를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의 교수·학습을 위한 학습 활동이 구안될 수 있을 듯하다.

(1) 기초적 활동: 아이러니의 정의 알기, 단서 발견하기.

아울러 더욱 발전적인 활동으로 다음의 활동들을 생각할 수 있다.

(2) 발전적 단계: 아이러니 출현 계기 이해하기, 아이러니 판별하기 (단서가 주어진 것, 주어지지 않은 것 비교·정리하기) 등의 활동을 들 수 있다. 그리고,

(3) 비판 및 평가적 활동: 아이러니의 효과 파악하기, 아이러니의 표현 방식의 적절성 평가하기 등의 활동을 배치할 수 있다.

(4) 창의적 구성적 활동: 더욱 적절한 아이러니로 대체하기, 실패한 아이러니 대체하기(혹은 '오소통 벗어나게 하기'), 아이러니 서사물 만들기, 아이러니가 발견하는 개인적이거나 존재적이거나 사회적(시대적) 특성 파악하기, 아이러니 파악에서 백과사전적 지식 알기의 강점 파악하기 등의 활동을 배치할 수 있다.

(5) 시각 조정활동: 관점이 다른 이해 방식 간의 차이 조정하기 등. 이러한 활동은 아이러니의 판별·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 된다. 특히 아이러니 이해 활동에서 모듈별 토론은 매우 중요한데, 예컨대 앞서서도 거론한 '아이러니의 공동체 창출 기능'을 매개로 모듈별로 결속력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러한 결속력은 아이러니 읽기 노동의 효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트주의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 읽기에는 어느 정도 섹트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이 감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별도의 교육적 처방을 숙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서로 다른 해석들의 충돌에서 유래하는 풍부한 의미 활동의 생산성에 일단 주목하기로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평가적이며 비판적인 해석적 활동의 비율을 높이고

텍스트 전체에 활동의 비율을 높인다는 것, 해석자 (집단)별로 차이나는 해석의 충돌을 고유한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소설 작품 전체 읽기 활동과 관련된 아이러니 활동 근거의 모색과 활동들의 배치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

V. 마무리

이 글은 아이러니 서사의 특성과 접근 방법, 교육적으로 조절된 읽기의 방법을 절차, 아이러니와 아이러니 서사 읽기와 관련된 교수·학습 활동의 구안에 이르기까지 절차 등을 다루었다. 전체적으로 아이러니에 대한 돌출가설과 이중정합성론 그리고 낮설게 하기 이론의 입장에서 아이러니의 표지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표지와 아이러니의 효과를 작품 전체의 주제와 관련해서 재해석하기 등 학습 활동이 필요한 근거를 말하고자 하였다. 아이러니를 사용한 소통의 방법에서는 복화술적 소통의 일종으로 가면이나 시치미뱀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만큼 제대로 된 해독을 위해서는 독자(수용자)의 노력이 필요하고, 바로 이런 점으로 인해 독자는 아이러니 소통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다. 아이러니나 아이러니 서사의 성공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번역, 해독, 판독, 가면 뒤에 숨은 얼굴 보기⁴⁵⁾ 등의 노력을 필수적으로 요청한다. 이러한 노력이 게으르게 이루어졌을 때 세련된 것을 의도한 소통은 잘못된 소통으로 전락하게 된다.⁴⁶⁾ 교수·학습의 상황에서 이러한 오소통을 피하는 것은 빈도가 빈번한 만큼 별도의 전략을 필요로 한다. 이는 풍부한 텍스트 읽기 활동 분석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텍스트 읽기 과정에

45) Booth, W.C.(1974), 앞의 책: 33 이하.

46) 아이러니에는 덧이 있고, 소박한 독자는 종종 이 덧에 걸릴 수밖에 없다. Booth, W.C.(1974), 앞의 책: 28.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상세한 학습 활동의 예시, 구안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진(1994), 「아이러니를 통한 소설의 현실 인식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박유희(2003), 『1950년대 소설과 반어의 수사학』, 월인.
- 이성범(2002), 『영어화용론』, 한국문화사.
- 임경순(1995), 「인물 형상화 양상을 통한 소설교육 연구-채만식 풍자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 임병덕(1998), 『키에르케고르의 간접전달』, 교육과학사.
- 장승일(1998), 「텍스트의 정합성과 담화의 관여성- Sperber/Wilson의 〈관여성 이론〉에 대한 텍스트 언어학적 이해」, 『프랑스어문교육』 제6집, 173-202면.
- 뒤부아 J. (외)(1989), 용경식 역, 『일반 수사학』, 한길사.
- 렌케마, J. (1997), 이원표 역, 『담화연구의 기초』, 한국문화사.
- 르블, A. (1999), 박인철 역, 『수사학』, 한길사.
- 링크, J. (1994), 고규진·김용민·이지은·전동열·한성자 역, 『기호와 문학: 문학의 기본 구조와 개념』, 민음사.
- 마르탱, R. (1993), 박옥숙 역, 『의미의 논리를 위하여』, 한국문화사.
- 마틴, W. (1991), 김문현 역, 『소설이론의 역사-로망스에서 메타픽션까지』, 현대소설사.
- 모너코(1998), J., 최인화 외 역,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세계영화평론 101』, 창작시대사.
- 피크, D. C. (1980), 문상득 역, 『아이러니』, 서울대.
- 벨러, E. (2005), 이강훈·신주철 역, 『아이러니와 모더니티 담론』, 동문선.
- 헝크, R. C. (2002), 신현정 역, 『역동적 기억』, 시그마프레스.
- 슈람케, J. (1995), 원당희·박병화 역, 『현대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 스파이비, N.N. (2004), 신헌재·박태호·이주섭·김도남·임천택 역, 『구성주의와 읽기·쓰기』, 박이정.
- 스페르버, D.·윌슨, D. (1993), 김태옥·이현호 역, 『인지적 화용론』, 한신문화사.
- 에버트, R. (2002), 최보은·윤철희 역,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위대한 영화』, 을유문화사.
- 에코, U. (1996), 김운찬 역, 『소설 속의 독자』, 열린책들.
- 칼리네스쿠, M. (1993), 이영옥·백한울·오무석·백지숙 역,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시각과언어.
- 프라이, N. (1982),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 辻大介(1997), 「アイロニー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論」, 『東京大學社會情報研究所紀要』 55号: 91-127.

- (http://homepage3.nifty.com/dt/paper/p04/p04_smry.htm)
- Booth, W.C.(1974), *A Rhetoric of Iron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iora, R. · Federman, S. · Kehat A.(2005), "Irony Aptness", *Humor Vol.* 18-1: 23-39.
- (<http://72.14.207.104/search?q=cache:MF0zFJ2NzWMJ:www.extenza-eps.co.uk/extenza>)
- Green, T. F.(1979), "Learning without Metaphor", Ortony, A., (ed.), *Metaphor and Thought*: 462-473.
- Hutcheon, L.(1994), *Irony's Edge - The theory and politics of irony*, Routledge & Kegan Paul.
- Nash, W.(1989), *Rhetoric: The Wit of Persuasion*, Basil Blackwell.
- Rose, M. A.(1993), *Parody: Ancient, Modern, and Post-modern*.
- Shelley, C.(2001), "The bicoherece theory of situational irony", *Cognitive Science* 25: 775-818
- (<http://72.14.207.104/search?q=cache:aKljd3rGZ4cJ:www.cogsci.rpi.edu/CSJarchive/2001v25/i05/p0775p0818/00000065.PDF>)
- Wellek, R., *A History of Modern Criticism*, vol.2, Yale Univ. Press, 1965.
- Yoon, Y.E., "Verbal Irony, Contradiction, and Speaker's Belief",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6-4, 2001.
- (<http://72.14.207.104/search?q=cache:8tZVPNnVg3YJ:home.ewha.ac.kr/~ebk22>)

<초록>

아이러니와 아이러니 서사의 읽기 문제

문영진

1. 이 글은 아이러니 서사의 특성, 교육적으로 조절된 읽기의 방법, 아이러니(서사) 읽기의 절차, 관련 교수·학습 활동의 구안 등을 다루었다.

2. 전체적으로 아이러니(아이러니 서사)에 대한 돌출가설과 이중정합성론 그리고 낯설게 하기 이론에 기대어서 아이러니의 표지 발견하기, 그 발견된 표지와 아이러니의 효과를 작품 전체의 주제와 관련해서 재해석하기 등 학습 활동이 필요한 근거를 말하고자 하였다.

3. 아이러니(아이러니 서사) 읽기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전체 의미의 잠정적 개괄 → 담론의 불합리함이나 부적합함 발견 → 담론의 의미 판별 → 반어 여부 판별(← 반어 표지 판별) → 반어의 효과 감지(발화 행위적, 발화 수반적, 발화 효과적) → 작품의 전체 의미 해독(으로 회귀). 마지막 두 과정은 반복되어서 반어의 효과 음미 → 작품의 전체 의미 음미로 순환한다고 보았다.

4.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었다. 기초적 활동: 아이러니의 정의 알기, 단서 발견하기. 발전적 단계의 활동: 아이러니 출현 계기 이해하기, 아이러니 판별하기(단서가 주어진 것, 주어지지 않은 것 비교·정리하기) 등. 비판 및 평가적 활동: 아이러니의 효과 파악하기, 아이러니의 표현 방식의 적절성 평가하기 등. 창의적 구성적 활동: 더욱 적절한 아이러니로 대체하기, 실패한 아이러니 대체하기(혹은 ‘오소통 벗어나게 하기’), 아이러니 서사물 만들기 등.

【핵심어】 아이러니, 아이러니 서사, 아이러니 읽기, 서사 교육, 아이러니 표지의 판별, 전체 텍스트 의미의 재구성

<Abstract>

Reading Irony and Narrative of Irony

Moon, Young-jin

1. In this paper I treats the following problems: the characteristic of irony and the methodologies of approaching irony, reading irony and narrative of irony, instruction and learning activity etc.

2. And in this paper utilisizing of the salient theory of irony, the bicoherence theory, making stange theory etc, I give a basis for necessity of activity of discovering on irony marker and understanding irony effect and reinterpreting the overall theme of irony text etc.

3. Processing method of reading irony/ narrative of irony is recontructed: provisional summing up of general meaning of the text → discovering of incoherence in irony discourse/ narrative → meaning verificationo of discourse → discriminating whether it is a irony or not(← discriminating irony marker) → evaluating the irony effect(locutionary, illocutionary, perlocutionary) → reading the overall meaning of the text.

4. The chief instruction and learning activity for understanding irony/ narrative of irony is as follows: knowing definition of irony, discovery of irony marker(foundational activity), understanding of irony moment, discriminating whether it is a irony or not etc.(developmental activity), understanding irony effect, evaluating pertinence of irony(critical activity), substituting for better irony, escaping from miscommunication of irony, creating the narrative of irony etc(creative activity).

[Key words] irony, narrative of irony, reading irony, discovery of irony marker, reconstruction of meaning of the overall text